



## 13대 과총회장 취임한 金炳洙박사

대담 /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  
장소 : 과총회의실  
일자 : 2월 20일 오전 10시30분

# “과총을 과학기술정책의 産室로 재무장”

“3백개 단체와 5백만 과학기술자를 포용하고 있는 우리 과총이 이 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산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3대 과총회장에 취임한 김병수 회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다짐했다. 김회장은 또 “과총은 과학기술인들의 현명하고 다양한 생각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이 시대에 맞는 ‘소리’를 낼 것이며 타 분야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회장은 “지난 대선때 발간한 뉴스레터 「과학기술시대」가 정책입안에 크게 공헌한 바 있어 앞으로 이 뉴스레터를 계속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13대 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13대 과총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작년 98년 정기총회에서였습니다. 저는 그간 과총의 이사나 부회장으로 이미 오랫동안 과총의 운영에 참여하여 왔습니다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과총의 여러 가지 사업에 익숙하고자 더욱 노력하여 그런대로 대개 윤곽은 잡고 있으나 막상 회장으로 취임하니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업적으로 오늘의 과총을 만드신 기라성같은 선배들의 뒤를 이어 그 분들의 빛나는 업적을 결코 손상시키지 아니하면서 과학기술계의

발전에 앞장서는 과총을 만들도록 애쓰겠습니다. 특별히 현재와 같은 훌륭한 과총회관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가능케 한 민관식명예회장님과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초석을 놓아주신 최형섭명예회장의 공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과총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의 총의가 담긴 유일한 단체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고 생각합니다. 3년 임기동안 힘을 기울여 이루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과학기술자 지위향상 노력

과총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아울러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 세가지에 유념해서 저는

일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과총이 명실상부한 이 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총은 3백개가 넘는 단체에 5백만명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모든 과학기술자들을 포용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이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여과하여 다양하고도 현명한 생각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관계당국에 전달하여 반영시키는 일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과총의 활동이 이 나라 경제 회복 및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어떤 단체의 크기나 설립 역사로써 중요성을 판단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직접적으로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만이 인정받는 시대에 과총의 각종 활동이 다양하게 과학기술입국을 통한 경제회복 및 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각종 학술회의와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들은 각각의 내용이 시대와 사회에 유익하도록 할 것입니다. 회원단체에 대한 활동지원도 그 효과가 큰 단체에 보다 많이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과학기술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난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전에 없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지위 향상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한사람의 신기술개발 결과가 전국민의 금모으기운동 결과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더욱 과학기술인들을 우대하여 쓸모있는 기술이 개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

다. 이를 위해 각종 시상제도를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인들을 격려하고, 많은 연구개발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노력하는 과학기술인들이 긍지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5백만 과학기술인의 단결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집약된 정책이나 합치된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이 정치적으로 그 힘을 인정할 것입니다.

■ 과총은 그동안 과학기술전담부서를 정부 내에 설치토록하는데 앞장섰으며 국책과제의 도출, 장단기발전 계획 수립은 물론 각종 과학기술법령 제정 및 개정 때마다 과학기술계를 대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과총의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사회구성 계층과 직능별 전문분야의 자기알리기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봅니다. 이런 면에서 과총도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키워야 한다고 보는데요...

### 시대에 맞는 '소리' 내겠다

맞습니다. 갈수록 전문분야의 자기소리내기는 치열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건데, 다른 분야에 비해 과학기술계가 자기소리내기를 그동안 덜했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과학기술'이라는 본연의 주제에만 관심을 쏟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



▲ 金炳洙 신임과총회장(왼쪽)이 본지 李光榮 편집위원과 대담하고 있다.

로는 과학기술계도 타 분야와 다양한 교류를 하는 가운데 자기소리를 냄으로써 자체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총은 이 나라 과학기술인들의 다양하고도 현명한 생각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시대에 맞는 '소리'를 낼 것이며 타 분야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 과총은 학술단체의 모임인만큼 학회의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과총의 회원단체중에서도 학회는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학회 학술활동의 육성지원이 곧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총사업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선 학회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학회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문학술지 발간과 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중점 지원하여 학회의 국제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보화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학회들이 연구전산망을 통하여 외국의

최신 과학기술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 국내외 회원들간의 E-MAIL, E-JOURNAL 사업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전산화사업에도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 국내 학회들도 유사학회들간의 연합 등 대형화를 위한 변신을 통하여 외국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학술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S.C.I.에 공인된 4개 학술지를 30여개로 확대하기 위한 특별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당국, 특히 예산담당부서에 우리 과학기술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투자를 높이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어려운 이 시대에 IMF극복을 위해 과총이 담당해야 할 몫은 무엇입니까.

### 해외 두뇌초빙사업 활성화

과총은 매년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국외학자들을 초청해서 새로운 학술이론과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IMF 상황에서는 더욱 그 내용에 신경을 써서 경제재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 현장에서 쓸모있는 기술 등이 이 학술회의를 통해 전파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훌륭한 해외 과학두뇌들이 들어가 일함으로써 외국의 선진기술을 국내 과학기술개발 현장에 접목하여 활력이 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과총은 해외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자협회'와 연계하여 많

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9개국에 있는 이들 '한국과학기술자협회'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과총이 인도하겠습니다.

특히 각 연구단체나 대학이 갖고 있는 연구내용이나 기술을 생산현장에 접목시키는 노력은 지체없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과학기술인도 이제는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 국민생활 과학화운동은 과총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뉴스레터 발간사업 계속

과학기술 대중화는 당장 그 효과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입니다. 과총은 그동안 과학도서를 각급 학교에 보내거나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과학기술 대중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초창기부터 수십년간 발간해온 월간 「과학과 기술」도 빼놓을 수 없는 과총의 얼굴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과학잡지로서 대중화와 과학기술정책 자료제공에 손색이 없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때 「과학기술시대」란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선진국 국가원수들의 의지가 그 나라 과학기술발전에 어떻게 공헌하여 왔는가 하는 실례(實例)를 대선주자들을 포함한 정책입안자들에 제공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마련되는대로 이 사업도 계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총은 이처럼 여론 주도층을 상대로 한 고급자료 제공과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대중화 두가지를 병행하여 추진해야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없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21세기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경제 뿐 아니라 인구문제, 공해문제, 에너지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들이 과학기술과 직결되므로 이런 내용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과총이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독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총의 경상비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없지만 사업비의 상당 부분은 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비를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총이 정부재정에 의존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국가의 사업을 과총이 대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결과의 파급효과가 클 때 정부예산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는 더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정자립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준비 아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과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과 운영의 변화를 모색할 계획은 없는지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시점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젊고 생동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전임회장 재직시 마련된 과총 발전계획에 따라서 기구 조직을 보완하고, 사무처를 전문화, 효율화시켜 나감으로써 새로운 과총의 조직은 전에 없이 능동적으로 과학기술계를 살피면서 회원단체에게 봉사하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㉔